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모든-데이터-활용-광주의-다양한-가게-한눈에
잇임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삼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광기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개조기 | 전선지우기 | 전기레인지

주간 제779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음력 2월 8일)

여기가 핫플 '제24회 광양매화축제'

회를 거듭할수록 격조 높은 감동으로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의 위상을 드높이는 '광양매화축제'가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축제다. 특히 올해는 축제 개최 공간인 '광양매화마을'이 세계적인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관광객들의 관심이 배가 되고 있다. 광양시는 '한국의 봄, 광양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와 '매화 피는 순간, 봄이 오는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다.



수줍은 매화 꽃망을 '방긋'... 그윽한 '봄의 유혹'

△화려한 퍼포먼스로 개막식 거행
 광양매화축제는 7일 오후 2시 매화문화관 앞 무대에서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차별화된 기획행사와 이색적인 체험 및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개막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종호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관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매화리웨이, 구구소환도 등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 당일 오전 9시30분 울산공원에서 오늘날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광양매화마을의 터를 닦은 울산 김오전 옹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거행된다.

오늘 개막... 16일까지 개최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황금매화 잡아라·매화GET 먹거리·체험·이벤트 다채

시, 쾌적한 '3무 축제' 지향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도약

△축제 입장권→축제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
 대한민국 봄의 제전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입장을 유료화하고 전액 축제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입장료는 성인(19~64세)과 청소년(7~18세)으로 구분해 각각 5000원, 4000원 등이다.
 면제 대상은 6세 이하, 65세 이상, 19세 미만 광양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인솔 교원 등이며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매표소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메인 매표소 외에도 도사 및 섬진 주차장, 임시 매표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축제상품권은 축제장 내 버스(노점상 제외), 다압소재 점포,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등 시에서 설치한 점포, 좌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간은 개막일인 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축제 기간, 광양 식당 및 숙박업소와 축제장 내에서 소비한 5만원 이상 합산 영수증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주 행사장과 광양시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추첨을 통해 333만원 상당 골드바, 갤럭시 S 10+, 갤럭시 워치 44mm 등의 경품 총 18명에게 증정한다.

△매화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풍성'
 제24회 광양매화축제는 꽃만 보고 가면 후회할 만큼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가 풍성하다.
 기획행사로는 한국관광 100선 탐방 이벤트, 매들 아일랜드 체험존, 매들이 굿즈샵, 사군자테마관, 황금매화·매실 GET 이벤트 등이 있다.
 '한국관광 100선 탐방 이벤트'는 매화문화관, 수월정, 장독대 등 광양매화마을을 상징하는 5개소 중 1개소의 인증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매들이랜드 체험존'은 전국적 인기 캐릭터 '매들이'를 활용한 테마형 페스티벌로 미션존, 포토존, 힐링존 등 3개의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스탬프투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개최 이래 최초로 '매들이 굿즈샵'을 오픈해 깜찍한 매들이 캐릭터를 상품화한 키링, 냇집 배개, 동전파우치, 주차번호판, 마그넷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33 황금매화를 잡아라' GET 이벤트 눈길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33 황금 매화를 잡아라' 이벤트도 관광객들의 관심이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333 황금매화를 잡아라'는 3월에 3無(차,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축제에서 300만원 상당의 황금매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한다.



섬진강 뱃길 체험



매화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

매화문화관 1층에는 K-문화의 원조인 사군자를 테마로 광양(매화), 담양(대나무), 함평(국화), 신안(난초) 등 4개 시·군이 협력해 기품 있는 사군자 테마관을 운영한다.
 체험행사로는 매화마을 인생네컷, 봄날 러브레터, 매실 하이볼, 매실 힐링테라피, 매화 목공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아울러 매화광 2박 3일, 매실 담아 광양도시락, 광양 '맛'보기 등 광양의 정체성을 담은 오감만족 프로그램과 먹거리들도 시민과 관광객을 기다린다.

△섬진강 요트·섬진강 열기구 등 체험행사
 섬진강 요트 일원에서는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 둔치주차장에서는 열기구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며 광양 좌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은 축제 전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섬진강 요트 일원에서 매시 정각과 30분에 운영되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매화 승선 정원은 25명으로 선착순 무료 탑승이 진행되며 승·하선을 포함해 30분 가량 소요된다.
 섬진강 열기구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둔치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회당 탑승 인원은 4~5명이고 7~8분 정도 운행하며, 체험 비용은 대인 2만원, 소인 1만5000원 등이다.
 운영은 상승·하강하는 계류비용 방식이고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광양시가 좌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제24회 광양매화축제 전 기간 야간 개장하고 광양매화축제와 연계해 스페셜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7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광양매화축제 입장권 발권 시 5000원권 스페셜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중복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도 계속되는 '3무 축제'
 올해로 제24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차 없는 거리,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등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3무 축제장 실현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일반차량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

고 용기를 공급·세척·재공급하는 다회용기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 만들기 나선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가 함동 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담합 등을 근절하고 가격 및 안전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 이용 꿀팁
 제24회 광양매화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입장을 유료화하고 차 없는 쾌적한 축제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축제장 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며, 일반차량 방문객은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후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
 특히 구례방면에서 오는 일반차량은 축제장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둔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동방면으로 남도대교를 건너 신원로터리 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다만 대형버스는 버스 전용 주차장인 도시주차장(섬진교방면), 섬진주차장(남도대교방면) 등에 주차할 수 있다.
 올해 주차장~매화축제장 간 셔틀버스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45인승 버스가 10분 단위로 둔치주차장~매화축제장을 오간다.
 주말에는 기존 둔치주차장(1구간)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신원 소둔치 주차장(2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중마동(광양시관광안내소)과 매화축제장을 오가는 도심권 셔틀버스를 왕복 5000원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중마동 탑승지는 '광양시관광안내소(광양시 중마중앙로 70)'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도 8회 운영되며, 광양문화관광 누리집 방문장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료는 왕복 요금으로 일반 5000원, 군인·경로·학생 4000원, 장애인·미취학 아동 3000원이다.
 광주 유스퀘어를 출발해 광양읍을 경유하는 고속버스는 평일에는 오전 9시, 10시 등 2회 운행하고 주말에는 오전 11시 버스가 증차된다. 축제장에서 오는 오후 2시, 3시, 4시에 출발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